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16.(목) 총 4매(본문3)	
담당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	담 당 자	· 과장 이성훈, 서기관 박영은, 주무관 노영환 · ☎ (044)201-3909, 3911, 3918
담당부서	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		· 과장 임재웅, 사무관 안홍환, 주무관 박승용 · ☎ (044)205-5230, 5236, 5243
담당부서	평창조직위 교통부		· 부장 이장원, 팀장 어승복, 매니저 손정필 · ☎ (033)350-5000, 5060, 5385
보도일시		2017년 11월 17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7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평창올림픽 성공기원, 강원권 폭설안전 전담조직 발족 올림픽 조직위·유관기관 등 17개 기관 합동...총력적 제설대응방안 마련

-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합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 기간 폭설에 대비한 총력적 제설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.
 - 특히 강원 지역이 타 지역보다 겨울철 적설·강설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, 관련 지자체와 제설 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·공유체계를 확립하는 등 제설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.
- (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능력 강화) 우선, 고속도로와 국도의 제설능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폭 확충하였다.
 - (고속도로) 강원권 고속도로 전년 대비 인력, 장비 약 130% 확충
 - * 인력(336명 → 436명), 장비(360대 → 462대)
 - (일반국도) 원주국토청 관할도로 전년 대비 인력, 장비 약 130% 확충
 - * 인력(459명 → 515명), 장비(636대 → 899대)

□ (지자체 지원방안 마련) 또한, 국토교통부는 도로제설 역량이 부족한 개최도시 및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설장비 지원, 예비 지원팀 편성 등 지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.

- ① 지자체의 부족한 제설장비 확충을 위하여 제설차량 77대, 제설 살포기 46기 등을 지원한다.
- ② 지자체 관리구간(평창군 내 15.3km)에 대해 도로제설 역량이 우수한 한국도로공사가 올림픽 특별제설대책 기간 동안 전담하여 제설 작업을 지원한다.
- ③ 예상치 못한 폭설 등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'예비 제설 지원팀'을 편성(3개조)하여 필요 시 지자체 제설작업을 지원하고, 충북, 경북 등 인근지역 제설 장비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여 운영한다.
- ④ 원거리 제설 자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제설 창고(1개소), 제설 대기소(7개소)의 신축을 지원하고, 제설 창고 17개소를 지자체와 공동 활용한다.
- ⑤ 빈틈없는 적기 제설 대응을 위하여 올림픽 기간 전 교육·모의훈련·점검 등 사전 대비를 강화한다.

□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올림픽 조직위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평창 동계올림픽 폭설안전 합동 전담조직(테스크 포스, 이하 "TF")를 구성('17. 3.~)하여 올림픽 기간 중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.

-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, 도로공사, 조직위 등이 참여하는 총력 제설 결의대회 및 업무 협약(MOU) 체결식을 11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.

- 또한, 교통통제 등 일관적인 의사결정 및 효율적인 제설 작업 등을 위하여 조직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한다.

-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“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제설 역량을 집중 지원하여 올림픽 기간 중 국민, 올림픽 관계자들의 정시 수송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 운영과 박영은서기관(☎ 044-201-3911),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안흥환사무관(☎ 044-205-5236), 평창올림픽 조직위 교통부 어승복팀장(☎ 033-350-506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평창올림픽 주요 제설 구간도

